

# 자율주행차 200대 광주 도심 누빈다…실증도시 지정

국토부, 첫 도시단위 시범운행지구…AI 데이터센터 등 강점  
4월 중 참여 기업 모집…GPU 우선 지원·규제 샌드박스 적용

광주시에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심장 부로 거듭난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2025년 12월 8일자 광주일보 2면)돼 200대 이상 인공지능(AI)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는 거대한 '리빙랩(Living Lab)'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시 전역을 단일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확정된 '자율주행 산업육성' 신규 사업(국비 622억 원 규모)의 후속 조치로, 특정 구간이나 지구 단위로 한정했던 기존 테스트베드의 한계를 넘어 도시 전체를 실증 공간으로 개편하는 첫 사례다.  
그동안 국내 자율주행 실증은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로 이뤄져 기술 축적에 한계가 있었다.  
자율주행 선도국인 미국(샌프란시스코, 피닉스)과 중국(베이징, 우한)은 이미 도시 전체를 무대로 대규모 무인 운행을 허용하며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는 광주를 이들 도시를 관통하는 '웨이모 시티'(Waymo City)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웨이모는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 기업 웨이모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요 도시들(피닉스, 샌프란시스코, LA 등)을 지정한다.  
광주가 최종 낙점된 배경에는 우수한 AI 인프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능력인데, 광주 첨단3지구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컴퓨팅 자원을 갖춘 '국가 AI 데이터센터'가 가동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광주 실증도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자원인 GPU(그래픽 처리장치)를 우선 지원한다.  
실증 차량에서 수집된 영상과 센서 데이터는 데이터센터로 전송돼 AI 학습에 활용되며, 이를 통해 도심 내 복잡한 돌발 상황(Edge case)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고성능 GPU(엔비디아 B200) 물량 중 2000장 이상을 자율주행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업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로 추진된다.  
완성차 업체가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에 최적화된 차량(SDV)을 제공하면,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율주행 두뇌를 입히고, 플랫폼사가 관제와 운송 서비스를 맡는 식이다.  
여기에 보험사가 결합해 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없애주는 전용 보험 상품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참여 기업 공모를 진행하고, 4월 중으로 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 수준에 따라 총 200대 이상의 실증용 차량이 차등 배분된다.

이 차량들은 광주의 주택가, 도심 변화가, 야간 도로 등 실제 시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도로 환경에서 운행하며, 단계적으로 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 주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1차 목적은 상용화 서비스 전 단계인 '기술 실증'에 있다"며 "택시가 아닌 전용 승용차를 이용해 데이터 학습과 기술 고도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증 사업은 안전성을 고려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규제 빗장도 확기적으로 풀린다.  
광주 전역은 '자율주행 샌드박스'가 적용돼 여객·화물 운송, 차량 안전 기준 등 현행 법령상의 각종 규제에서 면제된다.  
광주시는 진곡산단-빛그린산단-미래차산단을 잇는 '미래차 3각 벨트'와 도심 실증 단지를 연계해 자율주행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2029년 완공 목표인 '자율주행 AI 학습센터'를 통해 데이터 분석 역량을 내재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29년 완공 목표인 자체 '자율주행 AI 학습센터' 구축 사업과 연계해 데이터 가공 및 분석 역량을 내재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이번 광주 실증도시 지정은 기술 격차를 극복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도시 전체를 실험실로 내어주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산불 감시원 체력 시험 21일 오전 광주 북구에서 열린 '산불 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시험'에서 응시자들이 15리터 무게의 등짐펌프를 등에 메고 10분 이내 완주를 목표로 정해진 코스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농심 달란다…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144억 추경에 다시 반영

예년과 같은 228억원 책정

논란을 빚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지만 농민들의 원성을 샀던 전남도는 결국 추경을 결정했다.  
전남도는 21일 "지난해 정리추경에서 삭감된 벼 경영안정대책비 144억원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당초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예년과 같은 228억원으로 책정했다.

도의회 제출했지만 전남도의회가 농어민공익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절감을 잘라 수당 인상에 반영한 것이다.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절반으로 줄자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는데, 농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을 삭감한 전남도의회는 비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시·군에서는 도비가 줄어들자 주민 반발을 예상해, 자체 예산을 증액해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후 전남도의회,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올해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렸다.

전남도는 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전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범위가 중복되고 있어 보조금관리법을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산지 쌀값이 올랐지만, 농자재료 비용도 인상되면서 원상복구에 대한 농민 요구가 컸다"며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소방본부, 설 앞두고 합동 안전 점검

2월 11일까지 110개소 점검

광주시와 소방 당국이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안전 관리와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월 11일까지

연휴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영화관, 여객 터미널 등 110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장비 비치 상태와 비상구 등 피난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됐는지를 살핀다. 또 노년 차단기 작동 여부

와 가스 설비의 법적 기준 준수 등 시설물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도 화재 없는 명절을 위해 오는 2월 15일까지 '설 연휴 화재 예방 종합 대책'을 가동한다.  
소방본부는 대형 물류창고와 숙박시설 등 화재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 검사를 실시, 비상구 폐쇄 등 위법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시, 장애 여성 사회진출 돕는다

26일까지 운영기관 모집…직무 교육·취업 연계 등 맞춤 지원

광주시가 취업 문턱이 높은 장애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전문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광주시는 오는 26일까지 '2026년 장애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을 이끌어갈 보조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직 희망자의 특성과 장애 유형을 고려한 직무 교육부터 실제 취업 연계,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교

육 시설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교육기관 등이다.  
선정된 기관은 향후 1년간 장애 여성들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들을 채용할 지역 내 구인 기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취업 이후에도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피는 사후 관리까지 전담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시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

##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성경연구학과(Th.D.)	○
		사회복지학과(D.S.W.)	○
일반대학원	박사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실용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 전형일: 2026. 1. 29.(목)

###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 ▶ 모집학과: 신학과(M.Div.)
-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모집인원 0명 지원자격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 3학년 모집인원 0명 지원자격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학부 편입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일반편입(3학년)	정원외 학사편입(3학년)
인문	신 학 과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8.(수) ~ 2. 5.(목)
- 전형일: 2026. 2. 6.(금) 오후 2시

www.kwangshin.ac.kr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 전형일: 2026. 1. 29.(목) 오후 2시

▶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